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26년 7월 31일 사 진 : 포함 (1매)	작성과	고흥군의회의회사무과
		담당부서	과 장 : 김성자 팀 장 : 김도형 담당자 : 최승원
		연락처	061)830-6067

고흥군의회,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강력 촉구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잇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가적 지원 호소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는 7월 31일에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군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주항공산업을 매개로 한 ‘영호남 상생’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고흥군의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고흥과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경남 사천을 아우르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특화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구인력과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획기적인 국비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 국회는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초당적 협력으로 즉각 통과시킬 것

▲ 정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

한편,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국무조정실, 우주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하여 ‘영호남 상생’과 ‘우주강국 도약’을 향한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국가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 산업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은 미래 100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법률과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세계 5대 우주강국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지만, 우주산업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단순한 연구개발사업이나 개별 예산사업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우주발사체 개발과 발사 인프라, 항공우주 제조산업, 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집적, 교육과 주거를 포함한 정주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안이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시작은 고흥이었다.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를 써 내려왔고, 현재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민간 우주기업 집적을 통해 명실상부한 우주발사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경상남도 사천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항공기 제작과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고흥과 사천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발사와 제작, 연구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양대 축이다. 영·호남이 협력하여 국가 우주항공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 간 상생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국가전략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영·호남 상생,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데 뜻을 함께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과 사천 항공우주산업을 연계한 국가 우주항공벨트를 조성하여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권과 지역을 초월한 국가적 과제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실천하라.

2026년 7월 31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